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 호
2026년



관련기사 : 2026년
벌룬 피에스타 (6페이지)

2025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Photo Credits: Bennie Bos/AIBF) (Approved: 6 Nov 2025)

차 례 (CONTENTS)

뉴멕시코한인회소식 : 한인회장 인사말 윤태자 : 2	오늘의 말씀 : “절망의 환경을 뛰어 넘는 기쁨의 비밀” 추석근 : 10
지난 7-8월의 주요 뉴스 - 뉴멕시코 소식:	성경 : 기독교윤리 (18) 산상수훈
퍼시픽 퓨전, 핵융합 연구·생산 캠퍼스 착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김민순 : 12
엘리펀트 뷰트 저수지 및 가뭄 심화,	성지순례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6)
나바호 코드 토크 박물관 건립 : 3	비시디아 안디옥(Pisidian Antioch) 김민순 : 14
국내외 뉴스: 미한 UFS 연합훈련 21일 조기 종료	선교 :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신경일 : 17
컨트리 음악의 여왕’ 돌리 파튼 별세 : 4	영어이야기 (46) : Graduation Song
네팔에서 초대형 빙하·암석 붕괴 산사태	(졸업식 노래) 이상목 : 18
지역소식 : 알버커키 시니어 세째주 목요일	수필 : 살아 있는 책, 산책! 임동섭 : 20
점심모임과 10월 가을 소풍 : 5	시 : 점심꽃 캐티조 : 21
COVER STORY: 2026년 벌룬 피에스타 : 6	단상 : 책 최효섭 : 21
칼럼 : 잡초와 이상승배 김기천 : 7	교육 : 마음에 새겨진 그림 / 성경 퀴즈 : 22
칼럼 : 8.15 해방과 나의 정체성 나정용 : 8	9/10월의 화단 관리 팁(Tips) : 26
수필 : 폭염 이정길 : 9	뉴멕시코한인 교회/한인 업소 안내 : 23-25
수필 : 내가 본 별천지 나정자 : 11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한인 회장 인사말

윤태자

제21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듯한 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서 새벽에는 체감온도가 서늘해 졌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저희 집에도 사과, 석류, 대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해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한국학교 여름학기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한인회 임원들이 50여명분의 비빔밥과 된장국을 준비하여 이틀간의 종강파티를 도왔습니다.

8월 23일 한인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조영랑 이사장의 회의진행으로 이사회를 하였고 한인회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의 은행잔고 보고와 가을에 있을 행사와 예산 보고를 하였습니다.

8월 25일 여권 6건, 위임장 12건, 국적상실 및 이탈 5건, 가족관계 증명 12건, 기타 28건 등 전체 64건의 영사업무가 있었습니다. 한인회 임원들과 이사장이 회관에서 영사업무를 도왔습니다.

8월 28일 한국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29일 멘토링 행사는 임현 박사와 김이석 박사의 강연이 있었고 이후에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9월 18일 한국으로 가서 9월 26일

미주 총연의 밤 행사를 준비합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 세계 현직 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임원들 380명이 모여 강행군으로 지역별 토론, 한인회 우수사례 발표, 기념식 만찬, 회의, 한인 평화증진 사회적 대화, 강연 등을 참가하고 9월 30일 세계 총연합회 행사에 참가합니다.

10월 20일 돌아와 김치축제를 준비합니다.

10월 29일부터 김치를 담기 시작하여 10일간 준비하여 11월 7일 김치축제를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음식을 알리는 김치축제는 2007년 문상귀 한인회 회장이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맥이 끊어지지 않고 역대 회장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봉사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교민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주 전체 교민이 5000명이 되지 않는 뉴멕시코에서 한인 회관이 있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통합된 한국학교가 부설로 있으며 한인회중 미국에서 가장 먼저 김치축제를 한 곳이라는게 자랑스롭습니다.

올해 김치축제에도 교민 여러분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뉴멕시코 한인회는 역대 회장님들께서 하신 업적이 대도시 한인회 못지않

기에 미주총연이나 세계 총연합회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당당할수 있었습니다.

올해 21대 임기를 마치기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선거 60일전에 구성하여야 하는데 조금 일찍 하였습니다.

선관위원장 김진욱씨를 지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 정규철, 이기영, 손말레, 김일구씨 입니다. 선거는 정관대로 치루어 질 것이며 보다 나은 22대 한인회를 기대하며 21대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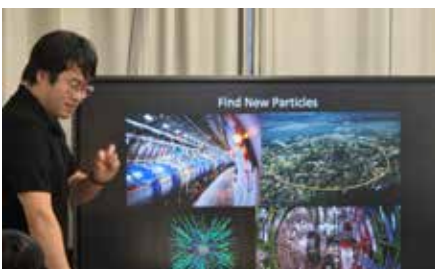
올해 연말까지 김치축제, 선거, 총회가 남아 있는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학교 여름학기 종강 파티 #1



한국학교 여름학기 종강 파티 #2



멘토링 행사중 임현 박사



멘토링 행사중 김이석 박사



한국학교 여름학기 종강 파티 #3

뉴멕시코 소식

지난 7-8 월 주요 뉴스

퍼시픽 퓨전(Pacific Fusion), 핵융합 연구·생산 캠퍼스 착공

지난 8월 25일, 앨버커키의 메사 델 솔 (Mesa Del Sol) 지역에서 에너지 기업 ‘퍼시픽 퓨전(Pacific Fusion)’의 10억 달러 규모 연구·생산 캠퍼스 착공식이 열렸다. 민간 자본으로 지어지는 이 시설은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주(州)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최초의 사례이다.

퍼시픽 퓨전(Pacific Fusion)은 약 22만 5천 평방피트 규모의 캠퍼스에 업계 최초의 핵융합 연구 시설을 설립하여 2030년까지 자체 소비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와 수백 개의 건설 및 지역 공급망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융합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와 유사하게, 강력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두 원자의 핵을 하나로 합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퍼시픽 퓨전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공동 창립자인 캐리 폰 뮌치(Carrie von Muench)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병원이나 입자 가속기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폰 뮌치는 최근 기술 발전을 언급해서 말했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연구진이 ‘점화(ignition)’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연료에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연료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과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료를 그 정도 압력 상

태로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 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메사 델 솔 시설에 들어갈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로스 루나스(Los Lunas)에 열었다. 로스 루나스 시설에는 이미 약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퍼시픽 퓨전은 2030년까지 이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고 투입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퍼시픽 퓨전(Pacific Fusion)의 접근 방식은 세계 최고의 핵융합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ies)의 Z 머신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퍼시픽 퓨전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키스 르시엔(Keith LeChien)은 “뉴멕시코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뛰어난 인재, 펄스 에너지 연구 분야의 오랜 역사, 그리고 핵융합 발전 구축의 시급성을 이해하는 리더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는 저희 핵융합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뉴멕시코에 더 큰 핵융합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엘리펀트 뷰트 저수지 및 가뭄 심화

뉴멕시코 7-8월의 극심한 가뭄으로 리오그란데 강 중하류 수십 마일 구간이 바닥을 드러내는 등 수자원 고갈 위기가 가중되었다.

심각한 가뭄과 겨울철 적설량 부족으로 인해 뉴멕시코주의 엘리펀트 뷰트(Elephant Butte) 저수지 수위가 전체 용량의 약 1.4% 수준으로 떨어지며 197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바호 코드 토크 박물관 건립

수년간 지연되어 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바호족 ‘코드 토크(암호 통신병)’를 기리는 박물관 건립 계획이 마침내 본격화된다. 미셸 루한 그리삼(Michelle Lujan Grisham)은 8월14일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착공식은 12월 1일 파밍턴(Farmingington)에 위치한 나바호 예비학교(Navajo Preparatory School)에서 열릴 예정이다.

루한 그리삼 주지사는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 예산이 건설 및 전시물 제작 비용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나바호족 코드 토크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용기, 그리고 우리 주와 국가를 위해 보여준 영웅적인 헌신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민주당 소속 루한 그리삼 주지사는 “생존해 계신 코드 토크가 두 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Santa Fe New Mexican에서 발췌 2026.8.15)

■



애리조나 윈도우 록에 있는 코드 토크 동상.(참고용 사진)
출처:Wikimedia Commons/
File:Navajo Code Talker Memorial.jpg /John Fowler

국내외 뉴스

지난 7,8 월 주요 뉴스

미한 UFS 연합훈련 21일 조기 종료...청와대 “긴밀 공조 지속”

VOA 뉴스 원문 (2026.8.21)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21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당초 오는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계획보다 엿새 앞당겨 조기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시작 당일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좋은 관계와 비용을 들어 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1부에 이어 반격 작전을 숙달하는 2부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훈련은 1부까지만 실시됐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전구급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미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축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UFS와 연계해 계획됐던 야외기동훈련(FTX)도 14건 가운데 7건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건은 정상 시행한다”며, 훈련별 일정에 따라 이미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훈련, 다음 주 시작하는 훈련 등을 포함해 28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21일 김영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

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 돌리 파튼 별세 트럼프, 전국에 일주일간 조기(弔旗)게양 지시

미국 컨트리음악의 여왕으로 불리는 돌리 파튼(Dolly Parton)이 80세를 일기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8월 25일 별세했다.

AP 통신은 파튼에 대해 테네시주 산속의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탄생해 “스타덤의 정점에 뛰어오른 컨트리 뮤직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파튼의 첫 음악 활동은 목사였던 할아버지가 계시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0살 무렵에는 기타를 배우며 지역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래를 불렀고, 13살 때는 컨트리 꿈나무들이 선망하는 무대인 내슈빌의 라디오 공개 방송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 무대에 섰다.

알버커키 저널은 돌리 파튼이 “Jolene”, “Coat of Many Colors”, “I Will Always Love You”와 같은 명곡을 포함해 수백 곡을 작곡했으며, 이 곡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와 10억 회 이상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음악 활동을 언급했다.

그의 경력은 테네시주의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12남매 중 하나로 자란



Dolly Parton in Köln
(2014) by Josef Just

성장 배경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그녀는 농사일을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버지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계기로, 테네시주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 비영리 교육 단체인 ‘이미지네이션 도서관(Imagination Library)’을 설립했다.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 사업은 확장을 거듭하여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까지 커버했고 총 3억권 이상의 무료 도서를 어린이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파튼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최고의 컨트리 가수 중 한 명이자 그 이상인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 큰 상실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며 파튼을 기리기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1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 조기(弔旗)게양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조기 게양 지시는 미 해군 함정(Naval Vessels)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음악인의 별세에 미국 정부가 일주일 동안이나 국가적 조기 게양을 지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파격적인 예우이다. 돌리 파튼은 생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각각 제안했던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모두 거절한 바 있으나, 그녀의 사망 앞에서는 미국의 모든 정치권이 대립을 접고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지역 소식

트럼프와 반목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X에 추모 메시지를 내고 “돌리 파튼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태어난 그녀는 11개의 그래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고, 사업 제국을 건설했으며,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도록 도왔다”고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며 돌리 파튼의 진정성과 자선 업적을 높이 기렸다.

네팔에서 초대형 빙하·암석 붕괴 산사태



2026년 8월 26일 오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초대형 빙하·암석 붕괴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현재(28일)까지 최소 560명 이상이 사망하고 1,900명 넘게 실종되는 최악의 대재앙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 상황은 현재 네팔에서만 최소 567명이 사망하고 1,924명이 실종되었으며, 티베트 지역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보고되었다. 사고 지역이 세계적인 트레킹 명소이자 종교 성지인 랑탕 리룽봉 인근으로, 실종자의 6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 및 순례객이다.

인프라도 초토화 되었다. 국가 간 주요 무역 거점인 지룽 통상구(양국 국경점 문소)와 미테리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9개의 수력 발전소와 수십 개의 교량이 쓸려 내려갔다. ■

알버커키 시니어 목요 점심모임과 10월 가을 소풍

매달 세째주 목요일에 모이는 시니어 Hope 그룹은 8월 20일 모임에 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34분이 알버커키감리교회 친교실에 모여서 냉면과 동그랑땡으로 준비한 점심시간을 즐겼다. 오는 9월의 점심은 9월 17일(목)이며 10월의 목요 점심은 토요일 가을 소풍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가을 소풍은 50인승 Coach Bus를 타고 헤이메즈(Jemez)산의 경관도로(Scenic Byway)를 거쳐 로스알라모스, 치마요를 거쳐 한바퀴 돌아오는 관광여행으로 여정을 잡았다. 여행 스케줄을보면 아래와 같다.

9:00 am: 감리교회주차장에서 출발
10:00 am: Jemez Pueblo, Walatowa History Museum (30분간 관람)
11:30am: Valles Caldera 지역 통과

<6 페이지로 계속 >

가을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요!

헤이메즈 산 경관도로 & 치마요 교회 탐방 가을소풍

시니어부에서 알버커키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뉴멕시코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을소풍을 떠납니다.

50인승 대형관광버스 이용

주요 방문 명소

1 Walatowa History Museum



헤이메즈 푸에블로의 인디언 역사·문화 박물관

2 Valles Caldera



화산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아름다운 칼데라 관망

3 Los Alamos Science Museum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 개발의 역사와 과학 이야기

4 Chimayo Church



뉴멕시코의 대표적인 성지로 알려진 치마요 교회



일 시 2026년 10월 17일(토)



출 발 오전 9:00
알버커키감리교회 주차장



도 착 오후 4:30경 예정



차 량 50인승
Herrera Coach Bus



신청비 \$10



대 상 참여를 원하는 시니어님(선착순)



신청 마감 9월 30일(수)까지



문의 최신옥 집사
505-514-3063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버커키 감리교회 시니어부
GLOBAL METHODIST CHURCH

COVER STORY

2026년 벌룬 피에스타

2026년 앨버커키 국제 벌룬 피에스타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는 10월 3일(토)부터 10월 11일(일)까지 9일간 벌룬 피에스타 파크 (Balloon Fiesta Park)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54회를 맞이하는 이 세계 최대의 축제는 500개 이상의 열기구가 참가하여 샌디아 산을 배경으로 장관을 이룰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새벽 풍선 점검 (Dawn Patrol), 아침 글로우 (Morning Glow), 대규모 동시 이륙 (Mass Ascension), 특수 모양 벌룬 로데오 (Special Shape Rodeo), 야간 글로우 및 드론 쇼, 불꽃놀이 (AfterGlow) 등이 있다.

특별 할인일: 10월 5일(월)은 뉴멕시코 주민의 날(New Mexico Day)로, 신분증이나 고지서로 거주지를 인증하는 뉴멕시코 주민은 일반 입장료가 무료가 되는 특별한 날이다 (단, 주차비는 별도).

올해의 테마 (The Scenic Route): 루트 66(Route 66)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여 루트 66의 역사와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뮤직 피에스타(Music Fiesta):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콘서트가 10월 10

일 토요일 '나이트 매직 글로우(Night Magic™ Glow)'와 완전히 통합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명 컨트리 가수 러셀 디커슨(Russell Dickerson) 등의 공연에 이어 드론 쇼와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특수 형태(Special Shape) 벌룬: 브라질 등지에서 온 월러스(Walrus, 바다코끼리) 모양과 팔콘 오지(Falcon Ozi, 매) 모양의 신규 해외 특수 형태 벌룬이 추가될 예정이다.

일반 입장권은 사전 예매 시 1인당 20달러이다.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티켓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balloonfiesta.com> 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극심한 교통 정체와 주차난을 피하기 위해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티켓을 이용하면 지정된 원격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용 셔틀버스로 축제장까지 왕복 이동하는 패키지 티켓이다. 이 티켓에는 축제 입장료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운행 요일: 축제 기간 중 목, 금, 토, 일요일에만 운행한다)

파크 앤 라이드 예매 가격 (수수료 별도): 성인 (만 13세 ~ 61세): \$30시니

10월 가을 소풍

<5 페이지에서 계속 >

12:15pm: 로스 알라모스 과학박물관 (30분간 관람+ 간식)

2:00pm: Chimayo 교회 (30분소요)

3:00pm: Santa Fe (공원에서 도시락 점심/Chopstix Oriental Food 에서 준비) (약 1시간 피크닉)

5:00pm: 감리교회 도착. 여행 마침.

참가비는 1인당 \$10이며 알버커키 / 리오란초 지역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한인 시니어이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다. 간식과 도시락은 주최 측인 시니어부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 문의는 최신옥 집사(전화: 505-514-3063)에게로 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9월 30일까지로 잡혀 있지만 버스 좌석 제한으로 마감 이전에 티켓이 매진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참가할 수 있는분은 지체 없이 신청하실 것을 권하고 있다. ■

어 (만 62세 이상): \$28 (당일 구매 시 \$31) 어린이 (만 6세 ~ 12세): \$21유아 (만 5세 이하):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소 (총 4곳) 앨버커키 시내 전역의 지정된 대형 주차장(무료 주차 가능)에서 출발한다.

1 코로나도 센터 (Coronado Center): 남서쪽 코너 구역 (San Pedro Dr. & Uptown Blvd. 인근)

2. 코튼우드 몰 (Cottonwood Mall): 북동쪽 주차장 구역 (Seven Bar Loop 인근)

3. 호프만타운 교회 (Hoffmantown Church): 북동쪽 주차장 구역

4. 인텔 (Intel - Rio Rancho): 주말(토·일) 세션에만 특별 운영하며, 동남쪽 주차장 구역 ■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Photo Credits: Triston Garcia/ AIBF)

잡초와 이상숭배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교회 앞을 보면 주차장이 있고 담 너머에 도로가 있지요. 그리고 도로와 담장 사이에는 교회 부지에 속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 다니도록 시멘트로 잘 포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보도와 차가 다니는 도로 사이에 흙으로 남겨진 공터가 약간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 사이에 있는 공터는 사실 알버커키 시에 속한 땅이지요. 문제는 이곳에 자라는 잡초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 이곳에서 자라는 잡초는 매우 억셉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시청에 찾아가서 이곳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이 없어서 포장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몇 년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제멋대로 자라난 그 잡초들 때문에 교회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매년 일어났지요. 여름만 되면 풀들이 자라나는데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라나고 또한 보도 주변에도 무성하게 자라나서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올해 이 문제를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풀들을 모두 베어내고 땅을 파서 새롭게 포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이 훨씬 밝아지며 교회가 깔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잡초들이 제멋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지요.

잡초. 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생겨나고, 또한 제거해야 하는데 더운 여름에 쉽지가 않았던 것이 교회 앞에 잡초

였습니다. 이런 잡초와 같은 것이 바로 이상 숭배 곧 탐욕입니다. 버린 것 같은데 다시 생겨나고 제거해야 하는데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에 탐욕이지요. 이 탐욕이라는 우상은 사랑이라는 거짓 탈을 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힘들어하고 심지어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속을 들여다 보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준 부부 사이가 멀리 떨어진 관계가 그 한 예입니다. 남편은 부인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 편안해 합니다. 부인 또한 남편과 같이 있거나 다니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아예 끊고 생활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분열되어버린 상태가 곧 지옥이지요. 신앙 안에 있는 가정이라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성경은 탐욕 곧 이상숭배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욕심 욕망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요. 조각칼을 들고 나무를 찌르고 베어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던 구약시대 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만한 상대를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찾아서 큰 기대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사랑으로 포장

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조종하지요. 때로는 조각칼과 같이 찌르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도저히 기대에 못 미치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곧 우상을 바꿉니다. 웨이크필드 목사님은 Equipped to Love라는 책에서 이런 변화를 “우상의 행렬(Trail of Idols)”라고 했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이상화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을 향한 기대에 실망하면 곧 친구에게 또는 이성에게 기대를 옮깁니다. 이성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큰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여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살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가정정보다는 직장에 몰두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실망을 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대 곧 욕망의 대상을 옮깁니다.

잡초와 같은 탐욕. 하나를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가서 다시 그곳에서 자라나고, 없애야 하는 것을 알지만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것이 탐욕 곧 이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상숭배니라(골로새서 3:5)”

■

칼럼

8.15 해방과 나의 정체성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유대민족 역사는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수다한 이방민족들의 문화 속을 거쳐 오면서 유대민족은 때로 정복 당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심지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70여년간 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파란만장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끈질기게 오늘날 까지 소중하게 간직해 온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정체성’은 존재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희박한 자의 인간 실존은 뿌리없는 나무가 쉽게 무너지는 것 같이 조그마한 시련에도 항상 흔들릴 수 밖에 없어 자기 주관과 개성이 없어 ‘copy 인생’ 내지는 ‘mosaic 인생’으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채 소중한 일생을 목적없이 표류하다가 끝 마치게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분명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 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명은 ‘나 정용’, 그러나 일본 식민지 시절 나의 이름은 ‘오하라 미스마찌’ 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정용’ 이었고, 밖에서는 ‘오하라’ 였습니다. 이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 식민지의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자

기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가 자기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왔던 심각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경험은 역설적으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추구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나는 누구냐?’ 또는 ‘우리는 누구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깊이 잠기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 칼날 밑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을 전 하셨던 용감한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온 가족을 함께모아 가정예배의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교에서 배운 실력으로 나는 성경을 더듬거리며 읽을 수 있었고, 그때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며 나의 정체성은 서서히 익어 가기 시작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는 어느 시대 누구든지, 비록 칼로 위협하는 일본 사람이 강요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였으며, 나의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심어 주신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이 나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1945년 8월 15일부로 단순히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 아니라, 불미스럽게 강요된 나의 ‘거짓 정체성’을 벗어 버리고, 나의 ‘참된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되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내 이름을 잠시 동안 만이라도 빼앗을 수 있었지만 내 ‘진정한 존재’는 빼앗을 수 없었고,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사 43:1) 확신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정체성’은 나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미국 사회를 비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등 우리신앙과 충돌할 수도 있는 가치관에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고 해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8.15 해방을 경험한 1세대들이 가져온 정신적인 유산 가운데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보배스러운 것은 ‘기독교적인 정체성’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멜찌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롬 8:38, 39).

나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까지 ‘네! 아버지! 저는 제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의 영원하신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

수필

폭염

지구의 온난화가 초래하는 극단적인 날씨가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그에 대처하기로 결의한 것이 30년도 더 전이었다.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회를 놓치면 기후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21년에는 일상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의 양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스의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온대인 우리 나라가 아열대로 바뀐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은 2016~2025년에 이미 아열대가 되었다. 전국 해안의 모든 도시가 2040년에는 아열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2026년 7월 초에는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공을 겹치기로 덮고,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그 아래로 불어 한반도가 ‘찜통’에 갇힌 것이었다.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결과였다고 한다.

최근 유럽과 북미 등에서도 살인적인 폭염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오메가 열돔’에 갇혀 에펠 탑 등 관광 명소의 운영이 단축되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역시 195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 국토의 3분의 2 가량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단순한 재난을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자연 재난에 드는 호우, 태풍, 강풍, 폭염, 대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폭염은 ‘조용한 살인자’

로 알려져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뉴 멕시코 주 앨버커키는 연중 유월이 가장 더운 달이다. 최고 기온이 성인의 정상 체온을 웃도는 날이 많고, 해가 진 다음에도 섭씨 20도가 넘는다. 기온이 화씨 90도(섭씨 32.2도)를 넘는 날이 한 달 내내 계속된다.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데다가 가뭄까지 들어 사람을 괴롭힌다. 그래서 각종 대중 매체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닥쳐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드는 심한 더위를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자주 일러준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는 시원한 몸으로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혈령하고, 가볍고, 열은 색에 흡습성을 가진 천연 섬유로 지은 옷을 입는다. 기온이 내리는 밤 늦게 아니면 아침 일찍 창문을 열어놓는다. 선풍기 앞에 얼음이 담긴 그릇을 놔둔다. 해가 비치는 쪽의 방에 휘장을 치고, 햇빛 가리개나 발 또는 커튼으로 별이 들지 않게 한다.

에어컨을 24~25℃에 맞춰 가동한다. 집이 더우면 가까운 곳의 냉방이 잘 되어 시원한 공공 건물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색한다. 몇 개의 500mL 들이 병에 물을 담아 놓고 수시로 조금씩 마셔서 자기가 마시는 양을 어렵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스포츠 음료나 전해질 분말을 섭취하여 손실을 보충한다. 체온을 낮추려면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아이스 팩을 목, 손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넣는다. 물에 적신 큰 손수건이나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한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몸이 반응하여 신체 중심부의 온도가 더 오래 지속되기 되기 때문에 조심한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많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은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 몸의 대사열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신선한 야채, 샐러드, 수박, 오이 등을 먹는다.

햇볕은 아침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강하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때는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누구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폭염은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정작 자신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다. 힘드는 운동이나 야외 활동은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하도록 계획을 짠다. 건강한 사람도 한더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실시간 비상 건강 정보나 대기의 질 프로그램 등에 주의를 기울인다. 가볍고 혈령한 옷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일터에는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시원한 곳이 마련되고, 탈수를 막을 준비도 되어있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 임신부, 야외 노동자, 운동 선수 등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온이 초래하는 질환의 증상을 잘 알고 있어서 나타나면 바로 대처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린 나머지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열 탈진은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메스꺼움, 차고 젖은 피부 등의 증상을 보인다. 고온 다습한 곳에 있을 때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생기는 열사병은 40℃가 넘는 체온에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11 페이지로 계속 >

“ 절망의 환경을 뛰어 넘는 기쁨의 비밀 ”

<오늘의 말씀>본문: (빌립보서 4장 4절~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추석근

산타페 한인 교회
담임목사



절망의 자리에 올려 퍼진 영혼의 찬가

감옥의 찬 바람이 닿는 어두운 구석,
당장 내일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
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글
을 써 내려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
라!” 화려한 궁전도, 안락한 거실도 아
닌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올려 퍼진 이
외침은 감정이 아닌 삶의 강렬한 선포
였습니다.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질문 하나가 피어오
릅니다. 대관절 무엇이 그를 그토록 깊
게 기쁘게 만들었을까. 환경을 뛰어넘
어 절망마저 찬가로 바꿔 버린 그 비밀
은 어디에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바탕, ‘주 안 에서’

바울이 누린 기쁨의 뿌리는 단단했습
니다. 그 뿌리는 외부의 환경이 아닌 ‘
주 안에서’라는 깊고 단단한 주님과
관계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
히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조건부일 때
가 많습니다. 일의 잘 풀림, 건강, 넉넉
한 통장 잔고에 지배받는 감정은 잔파
도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울
에게 기쁨은 단순한 기분의 흥분이 아
니라,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고요한
인생의 기조였습니다. 삶의 바탕에 그

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세상의 폭풍이
몰아쳐도 영혼의 깊은 바다를 평안하
게 유지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항
상 기뻐하는 기쁨은 기쁨이 우리의 인
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의 가치관
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
로 ‘항상’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힘
입니다.

관계의 상처를 무력화하는 너그러 움, ‘관용’

이 기쁨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두 가
지 영적인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대적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인간
관계의 상처’입니다. 살아가며 우리의
기쁨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것은 환경
보다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무기로 ‘관용’을 제시합
니다. 내 마땅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려
놓는 너그러움, 그것이 관용입니다. 자
신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가둔 이들을
향해 복수심을 품는 대신 십자가의 사
랑으로 품었던 바울처럼, 용서와 관용
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의 기쁨
은 메마르지 않고 온전히 지켜집니다.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는 ‘감사함 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 대적은 내면에서 꿈틀거리
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미래의 불안
을 오늘로 당겨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마스터 키(Master
Key)는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
경을 당장 리모델링해 주시기보다, 먼
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군대처럼 삼
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채
워주십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
은 여전히 감옥일지라도, 지각을 뛰어
넘는 평안이 내면을 감싸 안을 때 마귀
는 결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
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기쁨의 자리를 선택 하기

결국 기쁨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앞에서는 관용을 선택하고, 내일의 두
려움 앞에서는 감사 기도를 선택하는
것. 세상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
닌, 예수 안에서 환경을 지배하며 감옥
마저 천국으로 바꾸는 비밀이 바로 여
기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에서 염려 대신 기도를, 미움 대신 너
그러운 관용을 고뇌하며 선택할 때, 우
리 영혼에도 그 어떤 풍랑도 해치지 못
할 단단한 기쁨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
할 것입니다. ■

수필

내가 본 별천지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 케어(Adult day care) 라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아침 7시30분에 가서 11시30분까지 내 말 주변으로 표현하자면 “별천지” 입니다. 거기서 뭐하는 곳일까? 하며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서툰 발걸음으로 들어섰던 것이 벌써 두 달 남짓 되어갑니다.

내 손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평범한 일이건만, 매일 아침 문앞에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 몹시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 환대를 합니다.

찬송 멜로디가 조용히 흐르는 홀 안에는 곱게 차려입은 노인, 아직 젊어 보이는 젊은 노인들도 한가지로 새 가족이 되어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 양떡(빵- 오래전 이민오셨던 92세 의사 오박사의 표현)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가 시작되는거였습니다. 파스칼이란 사람이 말 했듯 피레네 산맥 이 쪽의 진리가 그 너머에서는 진리가 아닐수도 있다는 말을 그 얼마나 여러번 겪어온 노인장들일까!

뭐 그닥사리 강자도, 징징거림도 없는, 잘 나갔던 날도 무너졌던 일도 그저 공

폭염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천천히 마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거나, 곧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야하는 상태임을 말해준다.

증상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

감할 수 있는 예사로 말 해지고 쫓쫓 째려 어우러지는 풍경이 그럴듯하게 정감이 가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평범한 세상살이 희노애락 속에서 남겨진 얼룩들을 세상의 언어로 성공이나 실패로 변명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내뽐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터뜨려지고 방사되는 명품 명인들이 끄라리고 있던 질문들에 답을 띄어 주기도 합니다.

파아란 가을별 빨랫줄에 내 걸린 이불 호청 새물내를 맡는것 같기도 하고, 어슴프레 가물거리던 고향동네를 더듬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때로 글을 읽거나 쓰면서 내 삶의 응어리진 순간들과 곤잘 화해하곤 했는데, 이제 이 또 다른 세상 별천지에서 또 다른 화해를 경험합니다.

매주 한번씩 별천지에서는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쇼핑물도 가고 시장도 모시고 가곤 합니다. 이 때마다 쇼핑물에 다녀오신 우리 4번 테이블 식구인 송기준 여사는 늘 조그만 주머니 하나를 채워 들고 오십니다. 손주들 양말이며 손녀에겐 자그마한 스카

이 더 중요하다. 역대에 없었던 폭염은 기후의 변화가 초래하는 비상 사태다. 사회적 재난이 되어 인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후의 변화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

프 정도이지만 그게 여느 할머니들 보다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별천지 스케줄에 맞추어 데이케어 버스에 올라 송여사 옆에 앉아 쇼핑물 대열에 끼어 보았습니다. 그저 필요하면 다니던 쇼핑물 일지라도 별천지 식구들과 함께 하는 이 버스 여행은 조금 신기했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민와서 줄곧 창문 틀에 목을 매달고 살았습니다.”
“?...”

옆자리한 할머니 송여사의 이 심상치 않은 말에 무어라 선뜻 나서지 못했지요.

평생 목사의 아내로 “서둘지 않고 잘 듣는 훈련” 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애기인즉, 아들을 조산케 되어 나서부터 남달리 힘들게 키웠답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이민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한참 예민할 때여서 작은 영한사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당면한 현실을 해 내려 최선을 다하였지만, 생각처럼 훗딱훗딱 말이 나오지 않는데 애다 피부색이 다른 생김생김으로 해서 학교 내외에서 왕따로 시달림을 받는 아들!

뉴욕 택시 기사로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야 하는 남편! 혹은 집안일로 신경 쓰이면 운전에도 사고라도 생길까 싶어 아들애기, 사소한 집안애기조차 삼가

<13 페이지로 계속 >

성경

기독교윤리 (18) 산상수훈 마 6:9-1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악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소서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시리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Kim Castro Jisook이라는 이름의 가짜 계정으로 친구 신청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로 이런 사기 내용입니다. 본인 이 은행에 거액의 현금이 있는데 누군가 송금받을 계정이 필요한데 거액의 돈을 보내줄 테니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먼저 약간의 돈이 필요하니 MoneyGram 같은 방법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험악한지 사망 도처에 사기꾼들이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긴급하고 절박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악한 세상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는 기도입니다.

2.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셋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명으로서의 땅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악하고 엄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탕자같은 죄인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에 눈이 먼 탕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참 좋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주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둘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

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에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오직 돈만을 추구하던 인생이 변하여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사람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서의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면 언제든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던져진 존재, 그냥 우연히 이곳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특수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는

내가 본 별천지

<11페이지에서 계속>

며, 노심초사! 아들은 언제 들어올까, ‘오늘도 무사히!’의 남편을 기다리느라 창문에 목을 내걸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서에서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 와 있다는 전화. 그 기막히는 아들은 만취해 인사불성였을뿐 아니라 갱단 조직에 연루되어 손발이 묶인채 경찰서 바닥에 내 던져 있었으니! 이 어미 송여사는 날벼락 번개에 맞은듯 와락! 아들 목을 끌어안았을뿐. 선후, 자초지종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냥 광! 병어리가 되어 버리더라.

한참이나 이 참담한 모자의 광경을 본 경찰은 그만 아들의 손발을 풀어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은혜중에 이 아들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손주도 보았는데,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하고, 구원하고, 제자 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창조하며, 구원하며, 제자 삼으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의 기도입니다. ■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급히 찾더라. 사연인즉 그 남편이 요즘 여자친구가 생겨서 늦게 들어오곤 하니 이를 어찌면 좋으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난 후, 그는 “네 남편이 열 계집을 사귀어도 내게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로 한 방에 편안히 귀가시켰더라는 얘기였지요.

남달리 더 배운것도 없고 가진것이 많은것도 아니고, 남달리 잘 생긴 얼굴도 아니건만 우리 테이블에서는 그를 송박사라 부릅니다. 거쳐 지나온 쉽지 않은 사연들에서 귀담아 듣게되는 명답들이 술술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자는 어떠한 상황도 견뎌낸단가요? 예로부터 어미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분명하고도 분명한 살아 내야 할 이유가 있었듯이 이 송여사에게도 살아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태산처럼 버티고 있었나 봅니다.

내일은 여름방학도 끝나고 개학이 되어 다시 의과대학으로 떠나는 손주와 함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모여 아침식사를 한답니다. 창문 틈에 목을 걸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플때 알량한 지식이나 훈계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의 그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잡고 계셨던가 봅니다. 할렐루야!

다 토설치 못한 사연들이 아직도 겹겹이 잠겨있는 별천지! 뒤뚱뒤뚱 일지라도 가만히 듣다보면 깊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에 피곤한 마음이 쉼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본 별천지였습니다.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6)

비시디아 안디옥
(Pisidian Antioch)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3:13-14)

1. 서론: 밤빌리아 평원에서 타우루스 산맥 너머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중 밤빌리아의 버가(Perga)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Pisidian Antioch)으로 향한 행보는 초기 기독교 선교의 향방을 결정지은 중대한 전략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내륙 이동처럼 보이지만, 이는 당시 가장 번성하고 유적이 풍부했던 해안 도시 버가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제국의 심장부를 관통하기 위해 험난한 고원 지대로 스스로를 던진 치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물리적 한계를 신앙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과정인 동시에, 선교단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는 시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14절의 간결한 기록 이면에는 가혹한 지리적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구브로(Cyprus)의 바

보(Paphos)에서 버가에 이르는 약 300km의 뱃길을 마친 일행 앞에는 해발 3,000m에 달하는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Taurus Mountains)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해발 1,236m 고원의 안디옥에 도달하기 위해 이 험산준령을 넘는 과정은 바울이 훗날 고백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추위가 실존했던 경로였습니다. 예루살렘(Jerusalem)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마가 요한에게 이 압도적인 물리적 장벽은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가 요한의 이탈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인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출처: ConformingToJesus.com)

간적 한계 앞에 마주 선 한 청년의 실패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물리적 장벽이 로마의 군사적 기반 시설을 통해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재편되었는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산맥의 험로를 가로지르는 로마의 길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제국 내륙 깊숙이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가 되었으며, 이 지리적 고난을 통과한 끝에 바울은 아나톨리아(Anatolia)의 작은 로마라 할 안디옥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2. 전략적 배경: 로마의 세바스테 도로와 총독 가문의 인연

바울이 안디옥을 목적지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기반 시설과 상류층 인맥을 정교하게 활용한 섭리적인 기획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기원전 25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5 갈리카 군단과 제7 군단 퇴역병들의 정착지로 재건한 로마 식민도시 콜로니아 카이사레아 안티오케이아(Colonia Caesarea Antiocheia)였습니다. 이곳은 로마의 일곱 언덕을 본떠 일곱 구역(vici)으로 나뉘었고, 시의회인 오르도(ordō)가 다스렸으며, 토착 주민인 인콜라이(incolae)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로마적 질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원전 6년 법무관 코르누투스 아퀼라가 건설한 군사도로 세바스테 대로(Via Sebaste)입니다. 안디옥은 이 도로의 기점(caput viae)으로서 버가와 이고니온(Iconium), 루스드라(Lystra)를 잇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안정을 위해 닦은 이 기반 시설은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의 전략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정의 배경에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L. Sergius Paullus)



〈비시디아 안디옥의 구조〉

과의 인연이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비문 자료에 따르면 서기오 바울 가문은 안디옥 북서쪽에 거대한 영지를 소유한 유력자였으며, 1912년 램지와 앤더슨이 안디옥 현장에서 발견한 'L. Sergius Paullus filio' 비문은 총독의 아들이 이 도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서기오 바울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티베르 강(Tiber River) 관리관을 지냈으며, AD 70년에는 동방 속주 출신 최초로 로마의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구브로에서 회심한 총독이 가문의 근거지인 안디옥의 유력자들에게 써 주었을 소개장은, 바울이 안디옥 입성 초기부터 사회 상류층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선포와 갈등: 유대인 회당에서 온 시민의 소요로

안디옥 회당에서 행해진 바울의 첫 설교는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결합한 기념비적 강론이었습니다. 이 선포는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다윗 언약을 거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죄 사함의 권세로 이어지는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스테반의 설교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바울이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보고 들은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했음을 보여 줍니다. 배워야 전할 수 있다는 신앙 전수의 원리가 바울의 사역 안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 설교의 파급력은 인구 1만 명의 식민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기록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 기록은, 당시 안디옥의 관할 영역이 약 1,399km²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도시의 행정 구역 전체가 복음의 영향권 아래 놓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은 필연적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기득권을 위협받은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박해에 나섰는데, 이는 로마 식민도시의 시의회와 유력가문의 영향력이 작동한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도시에서 쫓겨나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 가문 비문 (알바치 박물관)〉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 기념교회의 설교단〉

다. 그러나 회당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신의 아들 황제 숭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도시의 영적 지형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4. 유적의 증언: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기독교 대성당의 대비

오늘날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은 황제 숭배의 위엄이 어떻게 기독교적 공간으로 재편되었는지를 고고학적 자료로 증거합니다. 도시의 최고 지점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를 기려 세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자리합니다. 신전 기초는 약 26×15m, 성역은 약 100×85m에 달하며, 자연 암반을 6.4m 높이로 깎아 만든 2층 반원형 열주랑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신전으로 들어가는 프로필론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자 국부로 칭하는 청동 글자 봉헌 비문이 있었고, 그 안쪽 기둥면에는 황제의 자서전 격인 『업적록(Res Gestae)』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24년 발굴에서 이 『업적록』의 파편 약 60점이 발견되었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비문이 발견된 곳은 앙카라(Ankara), 아폴로니아(Apollonia), 안디옥 세 곳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로마가 찬양한 군림하는 신의 아들의 대비는 이 도시의 정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전 아래 티베리아 광장에서 발견된 1세기 비문은 조영관 바이비우스가 906m에 이르는 도로 포장을 후원했다고 기록하여, 바울 시대에 이미 로마의 체계적인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데쿠마누스를 관통하는 터널을 갖춘 로마 극장은 최대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도시의 규모와 사회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4세기에 이르러 도시의 지형은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광장 서쪽 끝에는 대성당이 세워졌고, 램지는 이곳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시기에 순교한 네온, 니콘, 헬리오도루스 세 성인을 새긴 철제 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시 서쪽 끝의 대형 바실리카에서는 오퍼티무스 주교를 언급하는 모자이크 명문과 함께 시편 43편 4절이 새겨진 바닥이 나왔는데, 오퍼티무스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공의회에 안디옥 대표로 참석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 시기 안디옥 교회의 위상을 확인해 줍니다. 같은 바실리카에서 발견된 10-11세기 세레반에는 성 바울(Ο ΑΓΙΟΣ ΠΑΥΛΟΣ)이라는 이름과 시편 29편 3절이 새겨져 있어, 쫓겨났던 바울의 이름이 도시의 성물에 영구히 각인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한편 해발 1,600m 카라쿠유(Karakuyu) 봉우리에 있던 멘(Men) 신전의 석재

들은 5세기 교회를 짓는 재료로 재활용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 유적들은 한때 제국을 호령했던 황제의 두상이 코니아(Konya)와 이스탄불(Istanbul) 박물관의 파편으로 남은 반면, 복음의 메시지는 후원자 에우티키아누스와 독서자 이도메네우스 같은 평범한 성도들의 삶과 모자이크 속에 살아남았음을 웅변합니다.

5. 결론: 산맥을 넘는 신앙의 현대적 가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사역은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실패의 수용과 하나님 말씀의 최종적 승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전달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마가 요한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는 한때 실패자였으나 훗날 바울로부터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인정을 받는 인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일시적 좌절이 결코 끝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또한 바울은 비록 유력자들에 의해 도시에서 쫓겨났으나, 역사는 그의 선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수 세기 후 도시에서 가장 신성시되던 이교 신전의 돌들은 교회의 벽돌이 되었고, 바울의 이름은 도시의 세레반에 새겨졌습니다. 이는 복음의 열매가 당대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국의 심장을 관통하여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결론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친 돌무더기들은 단순한 고대의 폐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험난한 산맥을 넘는 신앙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타우루스의 험로를 넘어 도달한 그곳에서 선포된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장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앙의 전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선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Live! Even in your blood!

오늘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By the NIV version: Then I passed by and saw you kicking about in your blood, and as you lay there in your blood I said to you, “Live!”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의 골자기의 환상을 본 에스겔은 어떠한 선지자인가?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에 온 백성이 바벨론(Babylon)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그곳 바벨론에서 비탄에 빠진 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이다.

에스겔이 선포한 심판의 예언 말씀은 그에 앞서 예언했던 이사야 (Isaiah)나 예레미야의 메시지 (Message)와 유사했지만 공포와 희망 비탄과 위로의 메시지로 멸시와 천대를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Jerusalem)이 최후 공격을 받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는 비유, 상징, 예언, 표징 등을 사용하였으며 유다가 마른뼈와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아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현재 고통 뒤에는 반드시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인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한 음부의 비유 이야기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 하시고 회개 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다.

피투성 아이의 시대적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바벨론 포로직전 유다는 우상숭배로 타락이 극에 달함
2.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 아

이의 성장 이야기로 비유

3. 고대 근동의 영아 유기 관습을 비유로 완전히 버림 받은 생명의 모습을 보여줌

피투성 아이의 신학적 의미

버려진 아이 죄가운데 있는 이이스라엘

피투성이 죽음과 심판의 상태
살아 있으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성장 언약 백성의 회복
마지막 회복 메시아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피투성 아이를 왕의 신부로 세우시는 언약

1. 피투성이 아이를 살리신다 (에스겔 16:6)

2. 아름답게 단장하신다

세마포를 입하시고 금과 은으로 장식 하시고 면류관을 씌우셨다. (에스겔 16:10~13)

3. 왕의 신부의 자리에 세우신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를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신부로 높여 언약의 왕국의 지위까지 올라 오게 하였느니라(에스겔16:13)

그리하여 16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생명을 선언하시고 보호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분의 영적 신부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노라고 선언하였지만 자신의 언약을 기억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 하셨다. 우리의 시작도 피투성

이였다.

피투성이의 아이를 향한 에스겔의 메시지(Message)는 무엇인가?

1. 은혜는 조건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다.
2.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3.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사건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씻기시고 입히시고 장식하시고 왕의 신부로 세우신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숨만 쉬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첫째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둘째로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고, 셋째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고, 넷째는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Christian)들은 피투성이에서 영원한 휴거 백성으로 전진하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서 고투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Maranatha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New Mexico 에서 신경일목사 ■

영어 이야기

영어이야기 (46) Graduation Song (졸업식 노래)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은 LinkedIn을 통하여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고용주들은 필요인력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KakaoTalk을 이용하여 단톡방을 열어 가족간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연락망을 “networking”이라 할수있는데,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망뿐 아니라, “computer network”(컴퓨터로 연결된 망), TV network(TV 방송망)도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 사람과 친분관계가 있을때, 그는 말이 넓다라고 할수있는데, “social network”이 넓은 경우로, 우리말의 연(緣)줄과 비슷한 뜻으로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얹히고 설킨 인간관계에서 연줄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회와 학회간, 연구자와 연구자간의 network도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필수입니다. 학연, 지연(地緣)으로 뒤섞인 연줄이란 단어가 한국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점이 없지않아 있지만, 좋은 인연이 될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Edward Elgar(에드워드 엘가: 1857 - 1934)가 작곡한 “Pomp and Circumstance No.1 in D” (위풍당당(한) 행진곡)이 어떤 인연으로 미국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Graduation Song”으로서 졸업식 음악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Elgar는 King Edward VII(에드워드

7세)를 비롯하여 여러계층에 친구를 둔 폭넓은 social network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당시 Yale University(예일대학)의 음악교수(professor of music)로 있던 그의 친구 Sanford 교수는 Elgar가 명예박사학위(honorary degree)를 받도록 대학 당국과 협의하고, 그를 설득시켜 Elgar가 1905년 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오도록 했습니다. 식(ceremony)이 끝나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퇴장할때 학교 Orchestra 밴드가 “Pomp and Circumstance”를 연주하였습니다. 한번만 연주한것이 아니라 유명한 선율인 trio(3부중 제2부)부분을 모두 퇴장할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불어댔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다른 학교에서 온 분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여, 2년후에는 Princeton(프린스턴大)에서, 곧바로 다음엔 University of Chicago(시카고大), Columbia 대학, Vassar, Rutgers 대학에서 사용하게 되어, 1920년대에는 거의 모든 대학이 이 음악을 사용하게 되어 명실공히 “Graduation Song”이 되었습니다. 이 행진곡의 제목(題目)은 Shakespeare(셰익스피어)의 Othello(오셀로)에 나오는 “Pride, Pomp, and Circumstance of Glorious War”에서 따온 “Pomp and Circumstance”입니다. 원(原)제목은 “Pomp and Circumstance Military Marches”입니다. “Pomp and Circumstance”는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의용(儀容) 또는 몸가짐”

을 뜻하며, 한국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귀에 익숙한 trio부분은 “Land of Hope and Glory”(희망과 영광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Edward 7세 대관식송가(頌歌: Coronation Ode)의 “the land of hope and glory” 부분도 이 선율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악형식의 하나인 행진곡(march)이나 미뉴에트(minuet), 스케르쵸(scherzo)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trio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목적으로 모인 3명의 사람도 trio라고 부릅니다(Tom Dooley를 부른 Kingston Trio).

우리나라도 국민 누구나가 아는 졸업식노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초등학교)에서 주로 부르는 동요곡이지만 졸업생이 부르는 2절 (“♪ 잘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을 부를 때면 누구나 눈시울을 붉히는, 우리 모두 한번씩은 불렀던 노래입니다. 윤석중 작사에 정순철 작곡인데, 이분이 작곡한것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기를 포함하여 누구나가 부르고 들어왔던 “짜자꿍”이 있습니다. “♪ 엄마앞에서 짜자꿍 아빠앞에서 짜자꿍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살 퍼져라 ♪”. 우리나라의 졸업식노래가 동요인데다 슬픈 곡조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할수 있게끔 orchestra 또는 band로 조금 밝게 편곡하

여 연주하면 손색없는 우리나라의 “National Graduation Song” 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곡가 Edward Elgar의 작품중 Cello Concerto(첼로협주곡)가 유명 한데, 역시 영국출신의 Cellist (첼로 연주자)인 Jacqueline du Pré(재클린 두 프레)가 1967년 London Symphony Orchestra와 협주하여 더욱 유명 해졌습니다. 우리가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클래식은 Classical music이라 하는데, 음악의 한 형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정시기(1750~1820년)의 음악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Haydn, Mozart, Beethoven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Classical music 은 Bach의 Baroque(바로크) 시대 로 부터 현대에 이르는 orchestral music, 즉 violin, piano, flute, cello, horn등을 아우르는 합주음악을 뜻 합니다. 작곡자가 작곡한대로(음표대로) 연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비해, 오래된 country song을 나타낼 때는 classic country 로 부릅니다 (classical country가 아닙니다). 이때의 classic은 vintage, 그러니까 오래되고 향수를 느끼는 nostalgic 한 흘러간 노래를 뜻합니다. 시기적으로, 보통 1950~1980년대의 country music을 뜻합니다. 구성악기는 steel guitar, fiddle, Hawaiian pedal guitar등이 주류이고, 주로 실연의 아픔과 사랑, 농장이나 공장에서의 중노동 (hard work), 기차와 물차(box car) 빈칸에 올라타고 전국을 방황하는 떠돌이 Hobo들의 생활을 그린것이 많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Patty Page의 Tennessee Waltz나 Jim Reeves가 부른 “He’ll have to go”, 또는 “You are my sunshine”이나 “Red River Valley” 같은 흘러간 노래들이 classic country입니다.

관현악단 전체를 뜻하는 일반적인 말은 Orchestra, 대규모 교향악단을 말할때는 Symphony Orchestra라 할수있는데(London Symphony Orchestra, Chicago Symphony Orchestra), 연주자(단원)가 보통 70~100명이 됩니다. Symphony대신 Philharmonic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Berlin Philharmonic, New York Philharmonic). Philharmonic의 Phil-은 love, harmonic은 조화, 균형, 연결의 뜻이므로 Philharmonic은 “음악(조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이며, Orchestra는 그리스어의 “춤추다”에서 나온말로, “춤추는 장소, 극장의 합창공간”의 뜻을 거쳐, 지금의 관현악단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향곡의 악보와 전자회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학과 음악은 어찌보면 모두 복잡한 구조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업으로서, 서로 통하는 면이 있어보입니다. The choir sang the last verse in harmony.(합창단은 마지막 절을 화음으로 불렀다) The family lived in harmony.(그 가족들은 화목하게 살았다) The colors are in harmony.(색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있다)

Symphony는 “함께”라는 뜻의 접두사 Sym(또는 Syn)과 “소리 또는 음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phone(phony)으로 구성되어 “함께 조화되어 울리는 소리”, 즉 관현악단, 교향악단의 뜻으로 발전한 것 입니다. Sym 또는 Syn이 들어간 단어를 소개하면, Sympathy는 함께, 감정, 고통, 경험등을 나누므로 “동정, 공감”의 뜻이됩니다. The president has sent a message of sympathy to the families of the fallen soldiers. (대통령은 전사한 병사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예로는, Symmetry (

함께(균형있게)재다: 좌우 균형을 이룸), Synthesis (함께합치다, 즉 합성하다), Synchronize (시간을 함께 맞추다). Sync(Synchronize의 short form)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여러분이 전화와 PC를 서로 연결할 때 sync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PC와 전화가 서로 같은 정보, 즉 사진(photo)이나 동영상(video), file이나 message등을 시간을 맞추듯 서로 공유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예로들면, 삼성 폰의 경우, Phone(Google Phone) app을 열어 Backup이 되어있는 경우(보통 이미 Backup이 되어있습니다), computer에서 photo.google.com을 접속하면 phone으로 찍은 사진을 별도의 file transfer없이 computer의 screen으로 크게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학 졸업식 노래가 된 “Pomp and Circumstance” (위풍당당 행진곡) 듣기

위의 QR code를 스캔하여 Elgar작곡, BBC Symphony Chorus의 ♪ Pomp and Circumstance ♪를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Trio부분은 1:56에서, 합창은 2:52에서 나옵니다. (총 연주시간 8분 47초)



살아 있는 책, 산책!

임동섭

에콰도르 선교사



뉴멕시코 주 ‘로스알라모스(Los Alamos)’에는 딸 내외와 손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출발하기도 전부터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혈육을 만나는 기쁨도 크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은 로스알라모스 도서관을 통해 한국 책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로스알라모스 도서관에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한국 서적들을 구입해 비치해 줍니다. 딸의 집에 머무는 열흘 남짓한 기간에 보통 책 3권(1,000p 정도)을 읽고 읊니다. 이번(7월)에 읽은 책들은 ‘뉴턴의 일대기’,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리고 ‘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인 ‘뉴턴의 일대기’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까지의 흥미로운 일화와 그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뉴턴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당대 동료 과학자들과 나누었던 지적 대화, 그리고 그가 살았던 17세기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백설 공주에게 죽음을 (Snow White Must Die)’은 독일 작가 네레 노이하우스의 대표작으로, 시골 마을의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위선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10년 전 두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죄목으로 10년형을 살고 출소한 청년 ‘토비아스’가 고향 알텐하인으로 돌아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탓에 마을 사람들의 증오와 협박은 여전했고, 그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새로 이사 온 소녀 ‘아멜리’와 보텐슈

타인·피아 형사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10년 전 사라진 피해자 ‘스테파니’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마을의 ‘존경받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침묵의 담합을 해 왔음이 드러납니다.

이 소설은 범인을 찾는 재미를 넘어,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마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위선과 광기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강렬하게 경고합니다.

‘돈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Money)’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인 지식이나 지능보다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을 관리하는가(심리적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금융 베스트셀러입니다.

워런 버핏 자산의 핵심은 단순한 높은 수익률이 아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 온 지속성’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위험 감수가 필요하지만, 부를 유지하는 데는 겸손함과 적절한 경계심, 생존 본능이 필요합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뜻밖의 위협에 대비하는 ‘마음의 여백(안전유지비율)’을 갖는 것이 오랫동안 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딸의 집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들을 감상했습니다. 영화 3편은 모두 실화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수작들이었습니다.

‘두 교황 (The Two Popes, 2019)’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반대의 신학적·정

치적 견해를 가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베르고글리오 추기경(훗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을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베네딕토 16세와 변화를 촉구하는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치열한 논쟁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고통과 영적 고독, 과거의 상처를 고해성사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회의 쇄신을 위해 역사적인 ‘생전 사임’을 결단하고, 두 사람은 이념과 성향을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더 디그 (The Dig, 2021)’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서포크 서턴후(Sutton Hoo)에서 일어난 역사적 배 무덤 발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병을 앓는 미망인 에디스 프리티와 독학 고고학자 바실 브라운은 언덕 속에서 6세기 앵글로색슨 시대 왕의 무덤과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땅속에서 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유물들을 통해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긴 유산과 진실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인류학적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바람을 길들인 소년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은 아프리카 말라위의 가뭄과 기근 속에서 가난으로 중학교를 자퇴해야 했던 13세 소년 윌리엄 캄파바의 실화입니다.

소년은 절망하지 않고 작은 도서관의 과학책을 읽으며 풍차의 원리를 독학합니다. 쓰레기장에서 폐자전거와 고철을 모아 5미터 높이의 풍차 발전기를 완성해 낸 소년은, 마침내 전기를 일으키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마을을 기근

에서 구합니다. 호기심과 불굴의 의지가 이뤄낸 이 기적은 훗날 그를 세계적인 혁신가로 성장시킵니다.

딸의 집에서 틈틈이 ‘산책(散策)’을 즐겼습니다. 책이나 영화가 삶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산책(살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은 ‘생각을 저어 익히는 시간(묵상)’이자, ‘생각에 온기를 더해 고슬고슬하게 익혀내는 시간(뜸들임)’입니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조금하계 퍼올린 제 맛과 생각들은 대개 덜 익어서 틀고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술안의 밥은 ‘뜸들임’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제 맛과 풍미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깊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은 바로 그 뜸을 들이는 거룩한 묵상의 여정입니다. 산책하는 사람의 묵상은 발끝으로 땅 위에 시(詩)를 쓰고, 온몸과 감각으로 세상을 청강(聽講)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억지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발걸음의 일정한 리듬에 마음을 맡긴 채, 머릿속을 떠돌던 온갖 생각들이 스스로 온전히 익어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

책

사람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책과의 접촉을 통해서이다. 책은 깊게 이해하게 하고 넓게 알게 한다. 책을 읽지 않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바람직한 인격 형성도 어렵다.

책은 공기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배의 돛처럼 우리를 전진시킨다. 책을 읽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학교 교육의 제 일보는 읽기를 배우는 것이다.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나 깊은 예술이나 종교도 책을

뒤뜰의 접시꽃

캐티 조

아버지 NM
광야의 소리 독자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올라가는 그리움!
뉴멕시코 따가운 유월 햇살 아래,
고향 동네 곳곳 담벼락 타고 올라가던
그 정겨운 접시꽃들이
이제 우리 집 뒤뜰에서
서로 더 크겠다고 알록달록 키재기가 한창이네.

정열적인 빨강, 화사한 분홍, 순결한 흰색까지.
수줍게 뺨을 붉히던 첫사랑의 기억처럼,
장대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 여름 어느 날
기와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때도
그 부잣집 마당에는 접시꽃이 만발했었지.

몸이 아파 꼼짝없이 침대 위를 뒤척이는 오늘,
창밖으로 부쩍 키를 키운 접시꽃들의 속삭임이 들리네.
아픈 나를 향해 힘내라고, 어서 힘내라고
활짝 웃으며 고운 손을 뻗어
나를 잡아 일으켜 주네.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벗 중에 가장 틀림없는 벗은 바로 책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결코 고독해지지 않는다. 책의 사상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결코 지루해지지 않는다. 책의 변화가 즐거운 오락이 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결코 좁은 세계에 살지 않는다. 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로 날아다니게 하기 때문이다.

책 가운데 성경이 있다. 이것을 읽으면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몽땅 얻게 되며 동시에 삶에 대한 용기까지도 얻는다. (최효섭 저; ‘명상록’에서)

■

마음에 새겨진 그림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어려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빼놓고 외웠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루터에게 물려준 신앙, 아버지가 루터의 가슴속에 그려 준 예수의 초상화는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림이 되었다.

부모는 그 자녀들의 가슴속에, 그리고 어른들은 자라나는 세대의 가슴속에 불

멸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기억의 영구 보존을 말한다. 한 번 듣고 본 것은 의식되지 않더라도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잠재했다가 두고두고 그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네는 “좋은 부모를 갖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고 하였다. 좋은 부모는 좋은 그림을 그 자녀의 가슴속에 새겨주는 부모이다.

어려서 받는 신앙교육은 참으로 위대한 그림이다. 교육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예배의 장면, 성경 이야기, 주일학교에서의 경험 등은 모두 불멸의 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현대 예화사전’에서 : 최효섭 저)

성경 퀴즈 (Bible quiz)

가정과 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모은 것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작성되었음)

1.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_____ 하라, 땅을 _____ 하라
2.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_____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_____ 날 이니라.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 요 태의 열매 는 그의 _____ 이 로다.
4.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_____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_____ 을 받는 자니라.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 _____ 하리라.
7.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_____ 보다 더 하니라
8.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_____ 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_____ 못할 지니라 하시니
9.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_____ 를 사랑하시고 그 _____ 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10.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_____ 과 _____ 로 양육하라
11.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_____ 를 덮느니라

12.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_____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답

1. 창세기 1:28(충만,정복)
2. 창세기 1:31(좋았더라, 여섯째)
3. 시편 127:3(상급)
4. 잠언 15:17 (미워)
5. 잠언 18:22(은총)
6. 잠언 22:6(떠나지 아니)
7. 잠언 31:10(진주)
8. 마태 19:6 (하나님, 나누지)
9. 에베소 5:25 (교회, 교회),
10. 에베소 6:4(교훈, 훈계)
11. 베드로 전서 4:8 (죄)
12. 베드로 전서 4:10(청지기)

Korean Churches in N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 오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1:1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a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화, 오전), 성령기도회 (수, 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추석근 목사 (714) 213-9627

주일예배 1부 시간 :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 (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eur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87105
(505) 247-2525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M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
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애라 차베스 Etta Chavez
Coldwel Banker Legacy
(505-720-2477)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전용배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식당 Restarant

꼬끼오 코리언 치킨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Website:kokioabqnm.com

김스 마켓
Kim's Oriental Market
(마켓 부속 식당 한식,중식)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아리랑 식당
Arirang Market
(마켓 부속 식당)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 (일식,한식,스시)
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UNM 앞)
ABQ (505)243-8089

아시안페어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Website:
asianpearabq.com

이찌반 식당
Ichiban Japanese Restau-
rant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ABQ (505-485-3737)
Website:ichibanabq.com

사쿠라 스시 앤드 그릴
Sakura Sushi and Grill
일식 한식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케이 스타일 키친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사무라이 그릴 앤드 스시바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Website:
www.abqsamurai.com

쇼건

Shogun (일식 스시)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Website:
www.shogunabq.com

한미 (한식 중식)
Hanmi Korean Chinese
Fusion
2120 Juan Yabo Blvd. NE
ABQ NM 87112
(505-717-1287)

식품점 Korean Grocery

에이원 한국 식품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아리랑 오리엔탈 마켓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스 오리엔탈 마켓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약국

(Compounding Pharmacy)
Pharmacy on the Bosque
(김미정)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505-546-9217
(fax: 505-944-9320)
www.potbrx.com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com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제임스 박)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화원/원예 Nursery

오수나 너서리 (묘목, 화초)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r-
querque NM 87113
(505-345-6644)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

회계사 ACC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al Clinic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
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 & 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

로스루나스 Los Luna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 윤자정
219 Courthouse Rd. SE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웹사이트:
dentistloslunas.com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 (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 (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미용/건강 Beauty/Health

Atomy (atom美)
505-570-0092
최리안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 (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쇼건 스테이크 하우스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
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 박요셉-Sherry 부
부
(575)-762-1900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6년 9/10월호 발행일 : 2026.9.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발행처: 알버커키감리교회 사회 문화부
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Website: Voice.KumcABQ.com

PHARMACY ON THE BOSQUE
보스케약국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약학박사

COMPOUNDING PHARMACY

10:00 am - 1:30 pm, 2:00 pm - 5:00pm (Mon-Fri)
 전화 : (505) 546-9217

Email: infopotbrx@gmail.com
 Website: <https://www.potbrx.com>
 Facebook: Pharmacy on the Bosque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ETTA CHAVEZ
애라 차베스

REALTOR® Associate Broker

Cell: 505-720-2477
 Office: 505-898-2700
 Realty@EttaChavez.com
 EChavez.cblegacy.com
 10300 Cottonwood Park NW
 Albuquerque, NM 87114

 **COLDWELL BANKER LEGACY**

 **ICHIBAN**
Japanese Restaurant

Sushi • Japanese Favorites • Korean Dishes

Dine In • Take Out

10701 Corrales Rd Ste 18,
 Albuquerque, NM 87114

505-485-3737

 ichibanabq.com
 Scan for Website

HOURS

Mon	Closed
Tue-Wed	11:30 AM-8 PM
Thu-Sat	11:30 AM-8:30 PM
Sun	12-7 PM

Fresh Ingredients. Authentic Taste. Made with Heart. 

광고 안내

후면표지는 비즈니스
 유료광고란으로 이용하
 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야의 소리 이
 페이지에서 아래 링크
 를 클릭하셔서(voice.
kumcabq.com/2026-0910/AD.html) 지원방
 법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메일
VOICEofNM@gmail.com
 주소로 주시면 도
 와드리겠습니다.

9/10월의 화단 관리 팁(Tips)

-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국화(Mum), 금어초 (Snapdragon)와 같은 식물을 심으세요.
- 다년생 식물을 심으면 겨울 동안 기후에 적응하여 여
 림에 더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심을 때 구덩이
 에 과인산비료(super-phosphate)를 넣으면 꽃
 이 더욱 잘 피도록 도와줍니다!
- 가을은 수목과 관목을 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 뿌리가 더 잘 내리기 때문입니다!
- 장미와 다른 식물의 시든 꽃을 계속 제거하여 다음 개
 화를 촉진하세요.
-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같은 봄꽃 구근을 심으세요.
 심을 때는 네덜란드산 구근용 비료를 사용하세
 요.
-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위해 인디언 그라스(Indian
 grass), 리틀 블루스텝(Little bluestem), 블루
 그라마(Blue grama) 같은 자생 그라스를 심어보
 세요! 팜파스 그라스(pampas grass)와 같은 유

- 해 잡초나 침입성 식물은 피해야 합니다.
 - 마지막 서리가 내리기 전에 야외에서 여름을 보낸 실
 내 식물을 집 안으로 들이세요. 해충이 있는지 꼼
 꼼히 살피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 배롱나무(crape myrtle), 부들레야(butterfly
 bush), 무궁화(Rose of Sharon) 등 여름에 꽃이
 피는 관목을 가지치기 하세요.
 - 겨울철 열매가 돋보이도록 파이라칸타(Pyracantha)
 가지치기를 하세요.
- 참조: 오수나너서리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september



Snapdragon



Mum



Bluestem



Pyracantha